

보도 일시	2022. 6. 14.(화)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 6. 14.(화)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조규황 (054-912-0603)
		담당자	사무관 손주용 (054-912-0612)

‘붉은불개미’ 광양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500여 마리 발견 -

주요 내용

- '22년 6월 13일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어 소독약제 살포 및 컨테이너 이동제한, 정밀조사 등 긴급방제 실시
 - (발견상황) 컨테이너야적장 바닥에서 붉은불개미 500여 마리 발견
 - (긴급조치) 붉은불개미 확산방지를 위해 발견지점에 통제라인 및 방어벽(점성페인트, 비산방지망) 설치, 긴급소독 실시
 - (방제조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제구역내 컨테이너 및 바닥에 대해 소독약제 살포, 예찰트랩 증설 및 정밀조사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2년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500여 마리(일개미)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6월 13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원이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에서 200여 마리를 발견하였고, 6월 14일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30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6월 13일 발견 첫날에는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 라인과 점성페인트 및 비산방지망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약제 살포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우선 조치를 하였다.

6월 14일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50m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지침(매뉴얼)’에 따라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 및 야적장 바닥 등에 소독약제 살포, 야적장 전체 개미베이트(먹이 살충제) 살포 등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발견지점 반경 5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이동토록 조치를 취하였다.

검역본부는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전체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설치한 붉은불개미 예찰트랩 2,000여 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전국 주요 항만에도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부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방제구역 및 인접한 장소의 컨테이너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발견상황과 발견 시 신고토록 안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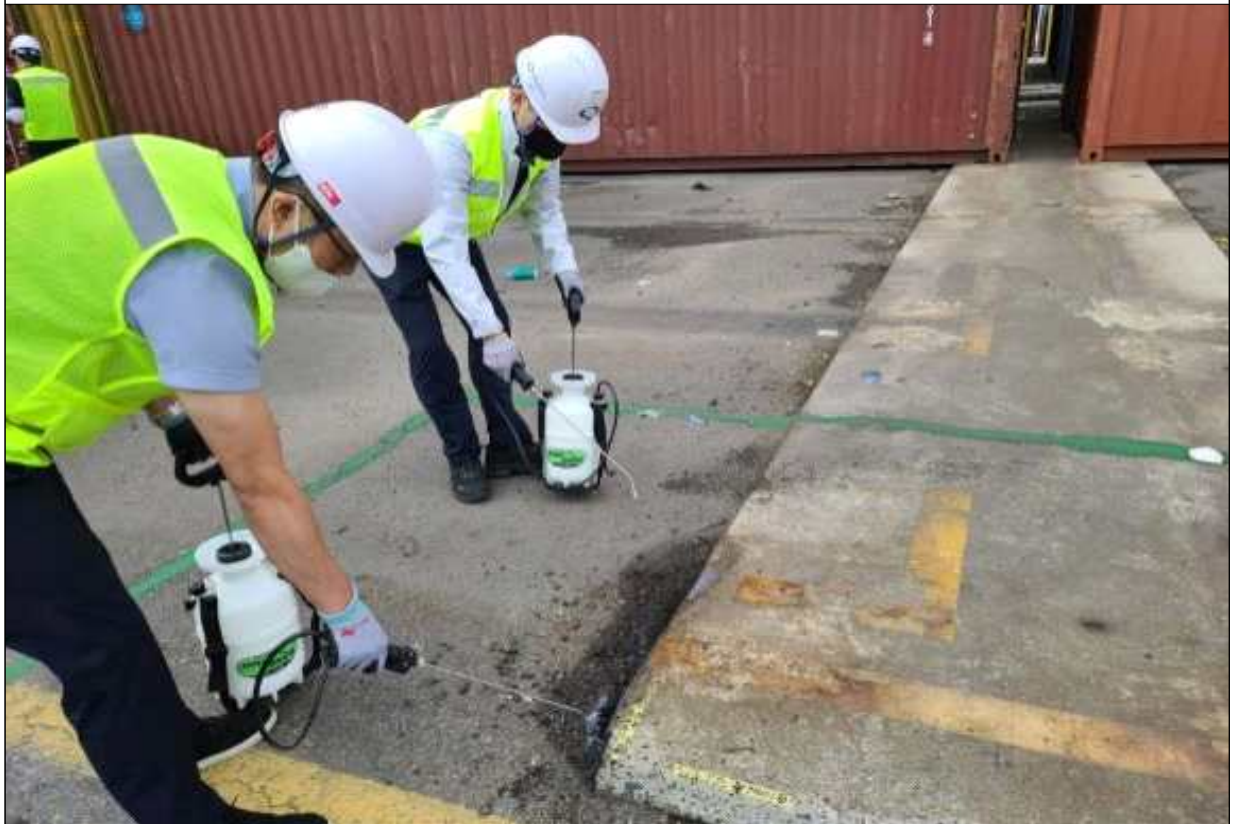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 054-912-0616)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관련 사진





< 전문가 합동조사 장면 >



< 붉은불개미 발견지점 긴급 약제소독 장면 >